

## 53. 급식시설 조리사에서 발생한 후두의 백반

| 성별 | 여성 | 나이 | 만 56세 | 직종 | 급식시설 조리사 | 직업관련성 | 높음 |
|----|----|----|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|
|----|----|----|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|

### 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0년 9월부터 약 14년 7개월간 A사업장 등의 급식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4월에 대학병원에서 후두의 백반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였고,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5월 11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### 2 작업환경

근로자 ○○○은 2000년 9월부터 2018년 4월 상병 진단 시까지 약 14년 7개월간 급식시설 5개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. 조리작업 전에는 1997년 7월부터 약 1년 1개월간 식음료 외판업을 하였고, 그 이전의 직업력은 없다. 근로자가 근무한 A사업장 등 급식시설 5개소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은 거의 유사하다고 하였다. 사업장별 식수와 식사를 준비한 작업자 수는 A사업장 150-180인분 5명, B사업장 600인분 5명, C사업장 200-250인분 5명, D사업장 300인분 6명, E사업장 200인분 6명이었다. 근로자는 급식시설에서 작업 시 가스를 켜고 끄기를 하루 15회 정도 하였고, 하루 4시간 반 정도 튀김, 구이, 볶음, 부침개 등을 조리하며 발생하는 연기와 가스를 흡입하였다. 근로자는 매 끼니마다 튀김, 구이 또는 볶음 요리가 메뉴에 포함되며, 한 번 조리 시 작업시간은 약 1시간 반이라고 하였다.

### 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 질환

### 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